

고구려 출신의 승랑을 상승한 중국삼론종 제2기의 가풍 [3] : 제2조 승전과 그의 제자 혜용을 중심으로

박 선 영

(동국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의 관점에서 한국승려들의 구법(求法)을 위한 중국 유학(留學)의 실태들을 각 시기별로 정리할 필요에 따라 시작된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고구려 출신의 승랑(僧朗)은 한국 승려들 중에서 중국 유학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에서는 그 동안 고구려 출신의 승랑(僧朗)을 상승(相承)한 중국의 삼론학 내지 삼론종이 어떠한 과정과 각 시기에 따라 어떠한 학풍 내지 가풍을 형성해 갔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한편, 중국의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초조(初祖)라 할 승랑의 신삼론학(新三論學)을 계승한 제2조인 승전(僧詮)과 이 승전의 문하에서 배출된 법랑(法朗), 혜포(慧布), 지변(智辯), 혜용(慧勇) 등 네명의 철인이라 할 이른바 전공사우(詮公四友)의 시대는 중국의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제2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제2조인 승전(僧詮)과 법랑의 학풍 내지 가풍에 관하여는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승랑 상승의 중국 삼론학 내지 삼론종 제2기에서 혜포(慧布)와 혜용(慧勇) 및 지변(智辯)의 학풍 내지 실천적 수행의 특징을 아직 검토하기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한 위의 3인 가운데 혜용(慧勇)을 중심으로 하여 제2조 승전과의 교육적 관계 속에서 승랑 상승(相承)의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 제2기의 학풍 또는 가풍의 일면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핵심 주제어(Key words): 혜용의 수학과 수행(修行)의 과정, 승전의 학풍과 선적(禪的)인 경향, 승전(僧詮)과 혜용(慧勇)의 교육적 만남, 승전(僧詮)의 교육적 목적과 방침, 승전과 혜용의 선적(禪的)인 경향의 성격, 승전과 혜용의 교육적 만남이 지니는 인격교육에 있어서 그 함의(含意).

《Abstract》

**The Scholastic Tradition of the Second Period of the
Sān-lún School in China Succeed Sēng-làng of Kokuryo**
- Focusing on the Second Patriarch Sēng-quán and His Disciple Hui-yǒng -

Park, Sun-young

(Dongguk University)

This is one of the series of researches to explore Korean Monk's chronological situation of Dharma study in China from the viewpoint of history of Korean education.

Master Sēng-lǎng(僧朗) of Kokuryo was one of pioneers of Korean Dharma teachers who studied in China. I have studied on the scholastic tradition of the second period of the Sān-lún School in China that succeed Sēng-lǎng in the series of previous researches exploring the process and formation of the Sān-lún School.

In the history of Chinese Sān-lún School, the scholastic tradition of Sēng-quán(僧詮) and his four disciples; namely, Fá-lǎng(法朗), Hui-bù(慧布), Zhi-biàn(智辯), and Hui-yǒng(慧勇) can be called the second period of Chinese Sān-lún School that succeed the first patriarch Sēng-lǎng.

I have already published the scholastic tradition of the second patriarch Sēng-quán and his disciple Fá-lǎng. This essay, therefore, will deal with one of Sēng-quán's other disciples, that is to say, the life and thought of Hui-yǒng(慧勇).

Key words: study and practice of Hui-yǒng, academic tradition and Ch'an style of Sēng-quán, educational encounter between Sēng-quán and Hui-yǒng, educational purpose and intention of Sēng-quán, Sēng-quán and Hui-yǒng's favorite and characteristics toward Ch'an Buddhism, the explicit meaning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encounter between Sēng-quán and Hui-yǒng.

I . 연구의 성격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의 관점에서 한국의 불교 승려들의 중국 유학(留學)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중국 유학이 지니는 한국교육사에서의 의의와, 한·중(韓·中) 사이의 정치적, 문화교류적 차원의 역사에서 그 기능과 함의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출신의 승량은 대체적으로 5-6세기경의 인물로 추정된다.¹⁾ 처음에 북조의 장안 지역에 유학하여 화엄과 삼론을 중심으로 하여 불교의 경율(經律) 등을 광범하게 수학·연구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강남의 남조에 와서 삼론을 새롭게 추구하면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승량을 상승(相承)한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각 시기에 그 삼론학 내지 삼론종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를 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본 연구자도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다시 언급될 - 신·고의 삼론학을 막론하고 - 삼론학이 근거하고 있는 경론(經論)을 다시 확인해 두고자 한다. 즉 삼론학 내지 삼론종의 이른바 소의경론(所依經論)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은 그 나름의 의도가 있다. 고구려 출신의 승량을 상승(相承)한 중국 삼론학 내지 삼론종이 어떻게 성립·계승·전개해 갔는가. 그리고 그 삼론학의 교의와 그 교의 속에 내재한 교육학적 함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 하나 하나는, 이 일련의 연구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그 각각의 논문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 독립적인 성격을 또한 지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일련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도에서 동일한 내용이 각각의 논문에서 필요에 따라 다시 인용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해 두고자 한다.

고삼론과 신삼론을 막론하고, 삼론학이 의존·근거하고 있는 경론(經論)들은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위시한 『반야경(般若經)』 계통의 방대한 불경들, 그리고 용수(龍樹, Nāgārjuna)가 지은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및 제바(提婆, Deva)의 저술 『백론(百論)』의 이른바 삼론(三論), 이 삼론에 『대품반야경』에 대한 100권의 방대한 주석서인 용수의 『대지도론(大智度論)』²⁾을 합한 소위 사론(四論)이다. 따라서 삼론학 내지 삼론종의 기본적인 소의경론(所依經論)은 방대한 『반야경』 계통의 불경들과 삼론 내지 사론이다.

한편, 중국의 불교사에서 삼론학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형성하게 된 것은 어떤 과정에 의한 것이었던가. 이 문제는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의 방대한 역

1) 朴先榮 「고구려 승량의 중국 유학과 활동 및 師承관계」, 『田雲德總院長 華甲紀念 佛敎學 論叢』 (1999), 697-699쪽.

2) 이 『大智度論』을 『智論』, 『大論』, 『摩訶般若釋論』, 『大智釋論』이라고도 한다.

경(譯經)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구마라집은 후진(後秦) 요흥(姚興)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강북의 장안에서 대승불교 전반에 걸쳐 광범하고도 다양한 경론들을 번역 또는 재역(再譯)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반야중관계(般若中觀系)의 경론들은 대승불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역경(譯經)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강론을 매개로 하여 중국에서 최초로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사상(中觀思想)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삼론학이 형성되게 되는 최초의 계기였다. 이와 같이 강북의 장안에서 이루어진 삼론학을 고삼론(古三論)이라고 한다.

고구려 출신 승랑은 강북의 장안 지역에서 이러한 고삼론을 수학 내지 연구하였다. 그는 이에 이어서 강남으로 가 섭산(攝山) 서하사(棲霞寺)에서 신삼론(新三論)을 추구하고 천명하였다. 승랑의 이러한 신삼론이 뒷날 크게 성황을 이루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승랑 자신의 넓고 깊은 학문적 사색과 논리의 명확성, 그의 고결한 인품 및 신행(信行), 스승인 법도(法度)를 이어서 “명찰(名利) 섭산 서하사”³⁾의 통솔자가 되어 신행(信行)과 연구 및 강론을 계속 추구하면서 신삼론을 천명해 간 활동 등이 바로 그 요인들이다. 여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은, 승랑의 이러한 소문을 들은 양무제(梁武帝, 재위: 502-549)가 10인의 역량 있는 학승을 섭산 서하사에 보내어 승랑에게 신삼론을 학습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⁴⁾

이 10인 가운데 승랑을 계승한 것은 승전(僧詮)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삼론학 내지 삼론종의 초조(初祖)인 승랑의 학설은 제2조 승전과 제3조 법랑(法朗)을 거쳐 제4조인 길장(吉藏)에게 계승되었다. 이 길장(吉藏, 549-623)의 대에 이르러 승랑을 상승(相承)한 후예들의 신삼론학을 집대성하여 전개함으로써 중국의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은 하나의 뚜렷한 학파 내지 종파의 성립을 보게 된다.

따라서, 승전과 그 제자들의 시대는 중국의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역사로 보면 제2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 승전에게서는 이른바 전공사우(詮公四友)라고 하는 법랑(法朗), 혜포(慧布), 지변(智辯), 혜용(慧勇) 등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배출되었다. 이 전공사우는 승전 문하의 사철(四哲) 즉 네명의 철인(哲人)이라고도

3) 『金陵梵刹志』는 중국의 金陵 지역의 크고 작은 사찰들을 3寺의 大刹, 5寺의 次大刹, 32寺의 中刹, 120寺 등의 小刹로 분류하고, 각 사찰의 역사, 제도, 史實, 詩頌, 유물 등을 集錄한 문헌이다. 섭산의 서하사는 이 가운데 3寺의 大刹에 이은 5寺의 次大刹 중 하나로 분류되어 권4에 수록되어 있으며, “古刹·勅賜”라고 畵註하고 있다. 단, 『望月佛教大辭典』(昭和49年 3월 25日 9版發行)에서는 이 문헌을 錢唐의 葛寅이 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民國 25年 10月 金山 江天寺 景印(據明天啓刻本)에 의하면, 이 문헌은 字를 記瞻이라 하며 현재의 杭州市에 해당하는 錢唐人으로 明朝의 葛寅亮이 撰한 것이 분명하다.

4) 朴先榮 앞의 글, 703쪽.

한다.⁵⁾ 그 가운데 법랑에 관해서는 그의 학풍과 수행을 승전과의 교육적 관계 속에서 검토한 연구물을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⁶⁾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승랑상승(僧朗相承)의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제2조인 승전과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네 대표적인 제자들 가운데 혜용(慧勇: 515-583)의 학풍과 수행의 문제를 제2조 승전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려 한다. 그리하여, 어떤 점에서 승랑 이래의 전통을 계승했으며, 그리고 또 어떠한 점에서 새로운 면모와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밝히려 한다.

이 연구에서의 방법은 사료들의 해석학적 검토를 통해 추구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로 승전(僧傳)들에 나타난 문면(文面)들을 역사적으로 각각 처하였던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제2조 승전(僧詮)과 그의 제자 혜용이 학문과 수행(修行) 내지 인격적인 측면에서 사제간의 교육적 교섭관계가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승전과 혜용을 중심으로 승랑상승(僧朗相承)의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 제2기에서 교육적 상황으로서의 학풍 내지 가풍의 일면을 해명하고자 한다.

II. 제2조 승전에게 있어서 학문과 수행의 경향

고구려 출신의 승랑(僧朗)은,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 강북의 장안 지역에 유학하여 소위 고삼론을 수학 내지 연구한 다음, 강남의 섭산(攝山) 서하사(棲霞寺)에서 신삼론학을 추구하고 선양하였다. 이른바 고삼론에서는, 구마라집 이전에 전역(傳譯)된 비담학(毘曇學)이나 기타 다른 영향 때문에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불교(中觀佛教)로서는 불철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한 예를 하나만 들면, 삼론학은 성실학(成實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삼론학자는 바로 성실학자이었고, 또 성실학자가 동시에 삼론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승랑의 신삼론에서는 이와 같이 불철저한 반야공관의 중관사상을 다시 철저하게 추구하여 진실한 반야공관의 중관불교를 밝히고 홍보하였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 출신 승랑의 위와 같은 추구하고 활동은 중국 삼론학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초조(初祖)인 승랑의

5) 平井俊榮, 『中國般若思想史研究-古藏と三論學派』 (東京: 春秋社, 1976), 273쪽.

6) 박선영, 고구려 출신의 승랑을 상승한 중국 삼론종 제2기의 가풍[1] - 제2조 승전과 제3조 법랑을 중심으로 -,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第10卷.

학풍은 그의 뒤를 이은 제2조 승전(僧詮)에게 계승되었으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승량의 학풍 내지 가풍은 어떠하였던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승량은 성품의 됃됨이가 널리 배우고 사력(思力) 또한 해박하였다. 무릇 경(經)과 율(律) 등 불교학 전반에 두루 강설할 수 있었으나 화엄(華嚴)과 삼론을 제1의 명가(名家)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⁷⁾

승량에 관한 이러한 역사적 증언은, 결국 승량의 학문이 폭넓게 여러 경을 전반에 두루 통호(通曉)했으나,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화엄과 삼론에 있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승량이 추구한 화엄학과 삼론학은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을까. 그의 화엄학은 시기적으로 화엄종이 성립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화엄경』의 경의(經義) 정도일 것이며, 삼론학은 고삼론이 지니고 있던 “반야공관의 중관불교”를 더욱 철저하게 추구한 새로운 삼론학 즉 신삼론이라 하겠다.

이른바 중국에서의 신삼론학사는, 다시 말해 중국 남조의 섭산(攝山)에 있어서 삼론학의 연구는 고구려 승량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옛부터의 정설이다.⁸⁾ 하지만 승량의 사적(事績)이나 그가 추구하였던 소위 신삼론학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문헌이 거의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후대의 제4조인 길장의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국내외 학계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승량이 추구하고 선양하였던 신삼론학의 내용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길장의 방대한 각종 저술들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명은 승량을 상승한 중국의 삼론학 내지 삼론종이 어떠한 과정과 각 시기에 따라 어떠한 학풍 내지 가풍을 형성해 갔는가 하는 것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길장의 방대한 저술들 속에 나타나는 삼론학적 이론들을 통하여 그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자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구명(究明)은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고삼론이나 신삼론을 막론하고, 이미 밝혔듯이, 삼론학이 근거하고 있는 이른바 소의경론(所依經論)은 『대품반야경』을 위시하여 방대한 『반야경』 계통의 경(經)들과 삼론 내지 사론이다. 따라서 이 경론들은 삼론학 내지 삼론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이 되는 문헌들이다. 그러므로 고구려 출신의 승량을 초조(初祖)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 내지 삼론종에서 이러한 소의경론들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승량의 학풍에는 삼론과 함께 화엄을 제1의

7) 「高僧傳」卷第8, 釋法度 『大正藏』第50卷, 380쪽 하단. “度有弟子僧朗 繼踵先師 復綱山寺 朗本遼東人 爲性廣學 思力該普 凡屬經律 皆能講說 華嚴三論 最所命家.” ※여기에서 『大正藏』은 『大正新修大藏經』을 뜻한다. 앞으로도 같다.

8) 平井俊榮, 앞의 글, 253쪽.

명가(命家)로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승량의 삼론학을 계승한 승전에게는 승량의 이러한 학풍이 계승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던 바 있다. 과연 이러한 가설이 실제의 역사적 사실로 확인될 수 있을까.

승전(僧傳)에 의하면, 법랑은 지관사(止觀寺)의 승전법사에게 삼론학 내지 삼론종의 소의경론인 사론(四論)과 『대품반야경』을 『화엄경』과 함께 수학하고 있다.⁹⁾ 이는 승량을 상승(相承)한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초조(初祖)인 승량 이래의 학풍 내지 전통이라 하겠다.

그러나 승량의 후계자 제2조인 승전에게서는 위와 같은 학풍만이 아니고 실천적 수행의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 기록은, 승전이 법랑에게 승량 이래의 전통이 된 학풍을 전수(傳授)하였는가 하면, 이와 동시에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삼매(中觀三昧) 수행(修行)을 또한 강조하면서, 승전 자신도 이와 같은 수행을 하고 있었음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기록이다.

[1]: 처음에 섭산(攝山)의 승전은 학업을 승량에게 받고, “현지(玄旨)의 분명한 바는 오직 중관(中觀)에 있다. 스스로 마음을 모아 이치를 분석치 않는다면 어찌 이 청언(淸言)에 계합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 자취를 그윽한 숲 속에 머물러 선미(禪味)를 상득(相得)하였다. 뒤에 4공(公)이 가서 삼업(三業)을 이어 받았다. 이에, 처음에는 간섭하여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자 부연하였다. 그러므로 전공(詮公)은 명하기를 “이 법은 정묘(精妙)하다. 식자(識者)라야 능히 행할 수 있다. 방을 나가 함부로 열어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아견(我見)을 헤아리는 자에게는 이 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깊이 법을 즐기는 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로 약 때문에 병이 있기도 한다. 헛되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법랑 등은 그 뜻을 받들어 감히 말하거나 뒤섞지 못했다.¹⁰⁾

잘 알려져 있듯이, 삼론학은 대승불교의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삼론이 불교의 논리학 그 자체는 아니지만, 대승불교의 공관(空觀)을 천명함에 있어서 그 어떤 학파나 종파보다도 철저한 논리적 치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근본목적은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 성불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중생들도 모두 성불하게 하여 다 해탈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실천에는 사념(思念)을 가라앉히고 밝게 관조하는 지관(止觀) 즉

9) 『續高僧傳』卷第7, 釋法明, 『大正藏經』第50卷, 477쪽 중단. “乃於此止觀寺 僧詮法師 浪受智度中百十二門論 並花嚴大品等經”

10) 위의 글, 477쪽 중단. “初攝山僧詮 受業明公 玄旨所明 惟存中觀 自非心會析理 何能契此淸言 而幽跡幽林 禪味相得 及後四公往赴 三業資承 爰初誓不涉言 及久乃爲敷演 故詮公命曰 此法精妙 識者能行 無使出房 輒有開示 故經云 計我見者 莫說此經 深樂法者 不爲多說 良由藥病有 以不可徒行 朗等奉旨 無敢言啓.”

정혜(定慧)의 실천적인 수행(修行)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수행이 없다면, 이는 관념적 이론이나 사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지관(止觀) 즉 정혜(定慧)의 수행이 없다면 진정한 불교인은 될 수 없다.

위의 인용문 [1]은 승전이 바로 이러한 점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기록이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점을 간절하게 깨우치면서 명심하도록 한 것을 증언하는 사료(史料)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승전 자신도 또한 스스로 선(禪)을 수행하여 선미(禪味)를 체득하고 있다. 그리고 지관(止觀)의 수행 즉 정혜(定慧)의 수행에 교의나 논리 또는 이론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깊이 법을 즐기는 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로 약 때문에 병이 있기도 한다. 헛되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의 깨우침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그의 학풍 내지 수행관(修行觀)이었다.

한편, 승전 문하의 4철(哲) 중 한 사람인 혜포(慧布)의 증언에 의하면, 승랑을 계승한 제2조 승전의 학풍은 넓으며 깊고 높다”¹¹⁾고 극찬한 바 있다. 그러나 승전의 특색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이미 잘 밝혀져 있거니와,¹²⁾ 제2조 승전은 초조(初祖) 승랑의 학풍을 계승하여 넓고 깊은 학풍과 더불어 선적(禪的)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¹³⁾ 앞서의 인용문 [1]에서, 제2조 승전이 삼론학의 탁월한 학장(學匠)의 풍모와 정혜(定慧)를 겸수(兼修)하고 있는 선사(禪師)의 면모를 아울러 지니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해 두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한 선행연구는 승전의 선적인 경향을 “반야중관(般若中觀)과 좌선삼매(坐禪三昧)”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¹⁴⁾ 이렇게 되면, 마치 제2조 승전의 선적인 경향이 “반야중관의 좌선삼매”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미 삼론학 자체를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불교(中觀佛教)로 규정한 이상, 승전을 위시하여 고구려 출신 승랑을 상승한 신삼론학 계열의 선적인 성격을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삼매(中觀三昧)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승전의 삼론학은 제3조인 법랑에 의해 대표적으로 계승되었다.¹⁵⁾ 그리고 그의 선적인 실천적 경향은 혜포에 의하여 대표적으로 계승되었다.¹⁶⁾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승전 문하의 4철 가운데 혜포를 득의(得意) 또는 사현(思玄)으로 별칭(別稱)하였고, 이 별명이 법랑의 사구(四句)나 “엎드린 호랑

11) 『續高僧傳』卷第, 釋慧布, 『大正藏』第50卷, 480쪽 하단. “承攝止觀寺 僧侶法師 大乘海嶽 聲譽遠聞”

12) 平井俊榮, 앞의 글, 273-286쪽.

13) 박선영, 고구려 출신의 승랑을 상승한 중국삼론종 제2기의 가풍[1] - 제2조 승전과 제3조 법랑을 중심으로 -, 『宗教教育學研究』第10卷,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204-205쪽.

14) 平井俊榮, 앞의 글, 273-275쪽.

15) 위의 글, 277쪽.

16) 같은 글.

이”¹⁷⁾, 또는 지변의 영어(領語)나 혜용의 문장(文章)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¹⁸⁾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승전의 이른바 전공사우(詮公四友) 가운데, 승전이 생존해 있던 당시로서는, 해포야말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제2조 승전의 진정한 후계자였는지도 모른다.

III. 승전과 그의 제자 혜용의 학풍과 수행

1. 혜용의 가정과 성장의 과정

전공사우 즉 승전 문하의 4철(哲) 가운데 대선중사(大禪衆寺) “문장의 혜용(慧勇, 515-583)”은 학풍과 실천적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경향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의 전기에 의하면, 조부 법식(法式)은 상서외병(尙書外兵)으로 전당(錢唐)의 령(令)이었다. 그러나 조부는 이 관직을 계기로 자취를 호구산(虎丘山)에 숨겼다고 한다.

아버지 헌(獻)은 젊은 나이로 죽었다. 한편, 어머니 장(張)씨는 일찍이 꿈에 몸소 불탑에 올라 금제 보살상 둘을 얻었다고 한다. 두 아들이 모두 속세(俗世)부터 불연(佛緣)이 깊어 불법을 크게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했음직한 꿈이다.

그러나 부친이 요절하여 혜용의 형제는 모친에 의해 양육되었다. 하지만,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그 기간은 매우 짧았던 것 같다. 혜용의 두 형제가 나란히 어려서 입도(入道)하였다. 즉 출가했다. 장자는 혜충(慧聰)이고 혜용은 차자이다. 한편, 혜용의 전기는 혜용의 형에 관해서는 그의 이름만 전할 뿐, 다른 언급은 전혀 없다.¹⁹⁾

그것은 그렇다 치고, 혜용은 비록 명문세족은 아닐지라도 조부의 관직으로 보아 비교적 높은 신분의 가문 출신에 속한다. 한편, 조부가 관직을 계기로 은둔

17) 제2조 승전의 이른바 詮公四友 가운데 別稱이 들쭉 있는 자는, 이 “註17)에서 法朗의 “엮드린 호랑이[伏虎]”와 다음의 “註18)에서의 “四句”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慧布의 경우 다음의 “註18)에서의 得意와 思玄 두 가지가 있다. 『法華玄義釋義』 卷第19, 『大正藏』 第33卷, 951쪽 상단. “詮有學士 四人入室 時人語曰 興皇伏虎朗 栖霞得意布 長干領辯 禪衆文章勇.”

18) 『續高僧傳』 卷第7, 釋慧布, 『大正藏』 第50卷, 480쪽 하단. “時號之爲得意布 或云思玄布也 故詮之解難聽者似解 而領辯猶迷 及依言領通 而構難疎略 致使談論之際 每有客問 必待布而爲答 時人爲之語曰 詮公四友 所謂四句朗 領辯 文章勇 得意布 布稱得意 最爲高也.”

19) 『續高僧傳』 卷第7, 釋慧勇, 『大正藏』 第50卷, 478쪽 상단. “祖法式尙書外兵 錢唐令 因此遁迹于虎丘山 一父獻瑞齡亡世 母張氏嘗夢 身登佛塔 獲二金菩薩 俄育二男 竝幼而入道 長則慧聰 勇其次也.”

(隱遁)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풍조의 영향이라 하겠다. 추측하건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남북조의 긴장관계와 여기에서 야기되는 전란들, 그리고 남조에서의 거듭되는 황조(皇朝)의 교체기를 살아가면서 벼슬길에 회의를 느꼈던 결과라 하겠다.

혜용이 515년에서 583년의 인물이고 보면, 그는 호불황제(護佛皇帝)로 유명한 양무제(梁武帝)의 천감(天監) 14(515)년에 출생하였다. 그런가 하면, 양무제의 통치 말기에 새로 등장한 진패선(陳霸先)의 혁명에 의하여 양조(梁朝)의 역사적 사명은 진조(陳朝)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혜용은 진조의 세조 문황제로부터 초청을 받고 강론하여 크나큰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진조의 지덕(至德) 원년(583)에 입적한 고승이다.²⁰⁾

2. 학문적 수학과 실천적 수행의 과정

혜용이 출가한 다음 불교의 학문적인 수학과 실천적 수행의 과정을 그의 전기에서 간추려 보자. 혜용은 처음에 영요사(靈曜寺)의 칙법사(則法師)를 화상으로 하여 선송(禪誦)의 수행에 뜻을 두고 예리하게 닦는가 하면, 몸을 다스리기를 푸성귀와 무로 하였다. 학업(學業)을 받았으나 전문을 일삼지는 않았다. 구족계(具足戒)의 수계를 계기로 정중사(靜衆寺)의 봉률사(峰律師)에게 『십송률(十誦律)』을 유학(遊學)했다. 그리하여, 좌우(坐右)에 복응(服膺)하면서 『성실론(成實論)』을 수학(受學)하여 종(宗)으로 삼았으며, 정(情)을 깔고 갈고 또 갈아 침식(寢食)과 피로를 잊었다. 고심하여 사색하고 침잠하여 구덩이와 언덕에 떨어지고 추위와 더위를 두루 지내면서 널리 익히어 대성하였다²¹⁾고 한다.

이렇게 볼 때, 혜용은 선송(禪誦)을 닦던 수행자이었다. 그런가 하며, 채식으로 몸을 다스리던 지계(持戒)의 실천자인 동시에, 『십송률』을 학습하고 연구한 율학의 학승이라는 점에서 율사(律師)이기도 하다. 학업을 받았으나 전문을 일삼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는 혜용이 학습과 연구 및 철저한 실천적 수행을 폭넓게 두루 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고심하여 사색하고 침잠하여 구덩이와 언덕에 떨어지고 추위와 더위를 두루 지내면서 널리 익히어 대성하였다”는 기록은

20) 平井俊榮, 앞의 글, 273쪽에서 혜용의 생몰연대를 515-582년으로 하고 있으나, 혜용의 전기에는 분명히 583년에 해당하는 至德 원년의 입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515-583년으로 하였다. 『續高僧傳』卷第7, 釋慧勇, 『大正藏』第50卷, 478쪽 중단.

21) 위의 글, 478쪽 중단-중단. “初出楊都 依止靈曜寺則法師 爲和向上 銳志禪誦 治身蔬菲 隨方受業 不事專門 豈非板金成寶 方資鈍鏤 瑄玉有美 必待剝磨 誠有由矣 年登具戒 從靜衆寺鋒律師 遊學十誦—乃服膺坐右 稟宗成實 刻清砥礪 寢食忘疲 苦思沈淪 坑岸期陞 彌歷寒暑 博習大成”

혜용의 학풍과 수행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상과 같이, 혜용은 학문과 수행을 두루 갖춘 진실한 종교인이며 매사에 각고면려(刻苦勉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고승이었다.

『속고승전』의 찬자(撰者) 도선(道宣)은 혜용의 이상과 같이 각고면려하여 닦아온 불교의 수학과 수행의 과정에 주목한 것 같다. “판금(版金)이 보배를 이룸에는 바야흐로 선철(銑鐵)의 도움이 있으며, 선옥(瑱玉)의 아름다움이 있음에는 반드시 갈고 닦음을 기다리는 것이니, 진실로 그 말미암음이 어찌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혜용의 수학과 수행의 과정을 찬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하겠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스승 승전을 만나기 전에는, 승랑상승(僧朗相承)의 삼론학과와는 서로 길항(拮抗)의 관계에 있던 성실학(成實學)을 수학(受學)하여 자신의 종(宗)으로 삼은 명백한 성실학승(成實學僧)이었다.

3. 강론의 시작과 스승 승전과의 만남

혜용은 나이 30에 이르자 바로 법륜(法輪)을 굴렸다. 즉 강론을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멀리서 학도들이 이르게 되자, 성대하게 강진(講津)을 열었다. 상경(上京)에 높이 견주어 보아 무성하되 우뚝하고 아름다웠다. 오로지 논(論)의 글만 강의하기 장차 10편(篇) 정도이었다. 잠시 지나 양(梁)의 시절이 기울어 넘어지자 사람들이 들끓었다. 매번 세사에서 숨으려고 생각했으나 그 곳을 알지 못하여²²⁾ 고심한다.

나이 30에 강론을 시작하였다고 했으므로, 한문 문화권에서는 출생과 더불어 한 살로 하는 관습을 고려한다면, 혜용의 강론은 양무제 말기인 546년에 시작되었다. 그의 강론은 크게 성황을 이루어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강론은 오직 논서뿐이었으며 그것도 10편(遍) 정도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 혹은 원인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의 분명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즉 그 원인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

혜용은, 이미 언급했듯이, 양무제의 천감 14년에 탄생한 인물이다. 한편, 양조(梁朝)의 4대 55년(502-556) 가운데 양무제(재위: 502-549)는 48년간 통치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 남조의 인문적인 문화를 찬란하게 개화하게 한 인물이다. 따라서 혜용의 성장과 불교의 수학 및 수행의 과정은 정치적인 안정과 폭넓

22) 위의 글, 478쪽 중단. “至年三十 法輪更轉 自此遠致學徒 盛開講津 高視上京 鬱爲翹采 專講論文 將十許遍 俄而梁季傾覆 人百洲騰 每思通世 莫知其所.”

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토론문화 속에서 고도의 인문적인 교양문화가 만개(滿開)하고 있던 남조문화의 황금기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불교문화의 극성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혜용의 강론은 불행하게도 양조(梁朝) 자체가 크게 기울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그의 강론이 10회 정도에 머문 것은, 이와 같이 양조가 크게 무너지고 역사적 임무가 양조(梁朝)에서 진조(陳朝)에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과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양진(梁陳)의 교체기에, 남조의 불교계는 양무제에 의하여 불국정토가 구현되고 있는 듯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꼈음직하다. “잠시 지나 양(梁)의 시절이 기울어 넘어지자 사람들이 들끓었다. 매번 세상에서 숨으려고 생각했으나 그 곳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황을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혜용은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직면하여, 정신적으로 영향이나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미 양조(梁朝)에서 무제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결국, 원제(元帝, 재위: 552-554)의 시기에 이르면, 황실의 대립을 이용하여 침입한 서위군(西魏軍)에게 원제가 살해된다. 이제 양조(梁朝)의 멸망은 시간문제였다. 이와 같이 어수선하고 동란이 한창일 때 단기간에 세력을 확대한 진패선(陳霸先)은 선양(禪讓)의 형식을 통한 혁명에 의해 진조(陳朝)를 건국한다. 혜용은, 이러한 역사적 격랑을 겪어가면서 매번 숨으려 했으나 마땅하게 숨을 곳을 몰라 망설이며 고심한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조부의 은둔적인 생활에 영향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남조와 북조의 근본적인 긴장관계와 여기에서 야기되는 전란들이 간헐적으로 야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남조의 거듭되는 황조(皇朝)의 교체가 있었다. 또한 유송(劉宋) 원가연간(元嘉年間, 424-453)²³⁾의 30년과 양무제의 재위시대 48년을 빼고서는, 남조에서는 항상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폭군의 등장과 극도로 잔인한 학정(虐政)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불안과 갈등의 시기에 직면하여 많은 지성인들이 둔세(遁世) · 은둔(隱遁) · 은일(隱逸) · 고일(高逸) · 일사(逸士), 그리고 이와 비슷한 처사(處士) 등의 생활을 택했던 풍조의 영향도 있었음직하다. 이러한 당시의 풍조는 사서(史書)에 이와 같은 인사들의 전기(傳記)가 적지 않게 실려 있는 것에서도 입증된다.²⁴⁾

23) 劉宋 文帝의 元嘉年間(424-453)은 30년간의 이른바 “元嘉의 治世”라고 하여, 명성과 신망을 지닌 귀족들의 보좌를 받아 정치가 안정되었다. 이 안정을 기반으로 劉宋朝의 全盛期를 맞아 인문적인 문화가 꽃피었으며, 종교와 사상 및 학술이 서로 폭넓게 交遊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고 있었다. 이 원가연간의 정치와 문화 및 불교에 관한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 의해 세밀하게 검토되었다. 鎌田茂雄, 『中國佛敎史 第3卷 南北朝の佛敎(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4), 100-118쪽.

24) ① 『晉書』 94, 『隱逸』에 40인. ② 『魏書』 90, 『逸士』에 4인. ③ 『北史』 88, 『隱逸』에 7인. ④ 『宋書』 93, 『隱逸』에 21인. ⑤ 『南齊書』 54, 『高逸』에 17인. ⑥ 『梁書』 51, 『處士』에 14인. ⑦ 『南

그러나 그것만이었을까. 여기에는 앞서의 인용문 [1]에 보이는 스승 승전의 실천적인 수행자의 모습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음직 하다. “자취를 그윽한 숲 속에 머물러 선미(禪味)를 상득(相得)하는” 수행자로서의 승전의 모습은 혜용에게 무언의 가르침이자 영향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혜용과 그의 스승 승전과의 만남은 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혜용은 일찍이 보은사(報恩寺)의 앞에 가다가 홀연히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섭산에서 온다”고 하면서 죽여의(竹如意)²⁵⁾를 주었으나 조금 있다가 잃어버렸다. 그가 혜용에게 말하되, “심구(尋究) 즉 탐구를 한다면 반드시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안 있어 종적을 잃었다. 이튿 밤을 자고 나자 칠함(漆函)이 있어, 삼론 일부를 담아 방 앞의 창 위에 두었다.²⁶⁾ 여기에서 혜용이 보은사의 앞에서 만난 사람은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제2조 승전임에 틀림없다.

혜용은 결국 보은사의 앞에서 승전과의 만남을 계기로 성실학승에서 삼론학승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 전연 새로운 신삼론학의 심구(尋究)에 몰입하여 무엇이 오는가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가서(嘉瑞)로 표현하고 있는 이적(異蹟)과 같은 체험이랄까 풍모라고 할까 하는 승전의 모습을 흠양(欽仰)하면서도, 날카로움과 용맹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속진(俗塵)의 옷을 마을 어귀에 털고 언어는 샘이나 돌에 멎에하는 탈속한 모습으로 전환한다. 그리하여, 신(神)에게 깊고 아득하기를 기약하여 금대(琴臺)의 반류를 꾀하지 않았다. 공(空)을 닦고 혜(慧)를 익혀 임원(林遠)의 풍(風)을 쫓았으며 바로 스승 승전의 지관사에 머물러 아침저녁으로 화락하게 되었다.²⁷⁾

혜용의 이 탈속한 모습에로의 전환은 그가 승량을 상승한 신삼론학의 탐구에 몰두하면서 날카롭고도 비판적인 신삼론학에서 당황스럽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리라. 당시 승량 상승의 신삼론학파는 성실학과 서로 길항(拮抗)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하여 신삼론학파가 비판 내지 비난의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주로 성실학이었다.²⁸⁾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이제까지 성실학을 자신의 종지로 삼고 있던 혜용에게는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이나 무력

史』 75, 『隱逸上』에 30인과 같은 『南史』 76, 『隱逸下』에 22인.

25) 이 竹如意에서 如意는 설법이나 法要 또는 논의할 적에 지나는 法具를 뜻한다. 원래의 如意는 대(竹)나 나무로 만들어서 등을 굽는 등굽이라고 한다. 또 강론하는 스님이 혼자 글을 기록하여 두고 참고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뜻한다. 일이 뜻한 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6) 『續高僧傳』 卷第7, 釋慧勇, 『大正藏』 第50卷, 478쪽 중단. “嘗行報恩寺前 忽見人云 從漏山來 授竹如意 俄失 謂勇曰 尋當如意 俄失蹤迹 信宿之間 又有漆函 盛三論一部 置房前窓上”

27) 같은 글. “尋究莫知來也 欣茲嘉瑞 銳勇難任 因此拂衣里閤 駕言石泉 期神杳冥 非企琴臺之侶 修空習慧 寔追林遠之風 便停止觀寺 朝夕侃侃如也”

28) 『法華玄義釋籤』 卷第19, 『大正藏』 第33卷, 951쪽 상단. “南謂南朝 卽京江之南 北謂北朝 河北也 自宋朝已來 三論相承 其師非一 並稟羅什 但年代淹久 文疏零落 至齊朝已來 玄綱殆絕 江南盛弘成實 河北偏尚毘曇 於時 高麗明公 至齊建武 來至江南 難成實師 結舌無對”

감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실학승 혜용이 삼론학을 통하여 성실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진통의 극복은 긴장된 마음을 풀고 탈속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나 탈속제로의 전환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공(空)을 닦고 혜(慧)를 익히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완전한 극복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승전의 지관사(止觀寺)에서 머물면서 임원(林遠)의 풍을 따라 아침저녁으로 점차 진정한 평정심(平靜心)을 회복하여 화락하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혜용의 실천적 수행은 “공(空)을 닦고 혜(慧)를 익혀 임원(林遠)의 풍(風)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삼매(中觀三昧)를 닦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임원(林遠)은 동진(東晉)의 지도림(支道林)과 혜원(慧遠)을 가리킨다.

위의 지도림은 자(字)를 도림(道林)이라 하는 지둔(支遁)을 가리킨다. 그는 만년에 석성산(石城山)으로 옮겨 서광사(棲光寺)를 세웠다. 그리고 산문(山門)에 연좌(宴坐)하여 마음을 선원(禪苑)에 노닐게 하고 무생(無生)에 뜻을 두었다. 그런가 하면, 안반(安般)과 사선(四禪)에 관한 제경(諸經)을 주(注)했고, 마명(馬鳴, Aśvaghosa)의 발자취를 따르고 용수(龍樹)의 그림자를 뒤쫓았다고 한다.

진(晉)의 애제(哀帝)가 즉위하자 국도(國都)에 나오도록 하는 초청에 응하여 동안사(東安寺)에 머물렀다. 여기에서 그는 도행파약(道行波若) 즉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을 강론하였다. 또한 「즉색유현론(卽色遊玄論)」 등 여러 저술을 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의 학풍과 실천적 수행은 초기불교 내지 소승의 관법(觀法)에 정통하면서도 이러한 관법을 반야공관의 중관삼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하겠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혜원은 중국불교사에서 정토의 염불수행을 개창한 동진 여산의 혜원이다. 그는 절 안에 따로 선림(禪林)을 두었다.³⁰⁾ 용수의 『대지도론』은 문구가 번다하고 넓어서 초학(初學)으로는 심구(尋究)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그는 그 요문(要文)만을 초(抄)하여 20권을 찬(撰)하였다.³¹⁾ 이러한 점에서 여산 혜원의 선(禪) 역시 반야공관의 중관삼매였다고 할 수 있다.

29) 「高僧傳」卷第4, 支遁, 『大正藏』第50卷, 348쪽 하단-349쪽 상단. “晚移石城山 又立棲光寺 宴坐山門 遊心禪苑—志無生 乃注安般四禪經 及卽色遊玄論 聖不辯論 道行旨歸 學道誠等 追從馬鳴 躡影龍樹—至晉哀帝即位 頻遣兩使 徵請出都 止東安寺 講道行波若 白黑欽崇 朝野欣服”

30) 「高僧傳」卷第6, 釋慧遠, 『大正藏』第50卷, 358쪽 중단. “遠創造精舍 洞盡山美 却負香爐之峯 傍帶瀑布之壑 仍石疊基 卽松栽構 清泉環階 白雲滿室 復於寺內 別置禪林”

31) 위의 글, 360쪽 중단. “遠常謂 大智論 文句繁廣 初學難尋 乃抄其要文 撰爲二十卷”

4. 만년의 생활과 활동

혜용의 전기에서 그의 강론을 통한 교화 내지 교육과 만년의 활동을 간추리고자 한다. 진(陳)의 천가(天嘉) 5년(564)에 세조 문황제가 청하여 태극전에서 강론하였다. 백백(百辟)이 갖추어 줄지었으며, “칠중(七衆)”³²⁾이 모두 모였고, 경앙(景仰)하는 무리들의 풍모를 보고 그 뒤를 따랐다. 유식(遊息)들의 행렬이 그림자에 붙어 무리를 이루었다. 이로부터 그 성명(聲名)이 크게 자자하였다.³³⁾ 매우 성공적인 강론이자 행사이었다. 결국, 혜용은 혁명에 의하여 양황조(梁皇朝)를 무너트리고 건국한 진조(陳朝)의 초청에 따른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양무제의 시대는 중국문화사에서 불교의 전성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깊이 불교가 뿌리 박고 있었다. 당시의 이러한 남조문화를 고려할 때, 아무리 봉불(奉佛)의 황조(皇朝)라 할 양조(梁朝)를 전복하고 건국한 진조(陳朝)라 하더라도 불교를 소홀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진조의 건국과정에서는 불교를 통하여 진조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진(陳)의 무제(武帝)가 건국초에 몸소 불아(佛牙)에 경배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이기도 하다.³⁴⁾ 그 뿐만 아니다. 진조도 불교 부흥의 시책을 추진해 가고 있었다.³⁵⁾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혜용은 양조(梁朝)의 멸망을 그토록 애석하게 생각하고 충격을 받아 세상에서 숨으려 하였으나 숨을 곳을 몰라 고심하였던 것으로 추측되었던 인물이었다. 혜용 그는 그 자신 걱정하였던 사태와는 달리 불교의 새로운 부흥의 징조가 보이자, 진조의 초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했다 하겠다.

혜용의 만년에 이루어진 그의 행장(行狀)을 요약해 본다. 대선중사(大禪衆寺)에서 머무르기 18년이였다. 즉 혜용의 최종 생애는 18년간 대선중사에서 이루어졌다. 강당을 만들게 되자 문인(門人)들과 청려(聽侶)들의 협력을 입어 단시일 내

32) 佛弟子들을 7종으로 나눈 것으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의 출가 五衆과 우바새, 우바이의 在家 二衆을 뜻한다.

33) 『續高僧傳』卷第7, 釋慧勇, 『大正藏』第50卷, 478쪽 중단. “天嘉五年 世祖文皇 請講於太極殿 百辟具陳 七衆咸萃 景仰之輩 觀風繼踵 遊息之伍 附影成群 自此聲名 籍甚矣.”

34) 陳의 高祖 武帝인 陳霸先은 불교도들이 가장 숭배하는 佛牙를 이용하여 자신이 禪讓에 의한 혁명을 정당화하는 증거로 삼고자 했다. 다시 말해, 武帝는 梁의 太平 2년(557)에 제위에 올라 연호를 永定이라 고치자, 조칙을 내려 杜姥宅에 佛牙를 놓고 四部의 僧俗을 모아 無遮大會를 개최했으며, 門樓 앞에서 무제가 몸소 佛牙에 예배하였다. 이 불아의 전래와 이것이 진조 건국의 정당성 확립에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그 진상의 허실에 관한 것은, 이미 한 선생연구에 의하여 세밀하게 검토되었다. 鎌田茂雄, 앞의 글, 230-236쪽.

35) 위의 글, 230-248쪽.

에 비현(飛軒)에 물받이를 연접시켰으며 홍창(弘敞)을 만들어 두고 반야지당(般若之堂)이라 제(題)하였다. 지덕(至德) 원년(583) 5월 28일에 병을 만나 조금 있다가 여명에 신서(神逝)하였다. 춘추 69세였다. 그러나 시간이 크게 지나도 신용(神容)이 변하지 않았다. 밤이 지나자 정수리가 따듯해졌다. 대중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6월 6일에 이르러 섭산(攝山)의 서령(西嶺)에 장사 지냈다.³⁶⁾

또한 혜용의 전기에는 그의 강론을 통한 교육활동과 업적에 관한 내용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혜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론한 것은 『화엄경』, 『열반경(涅槃經)』, 『방등대집경(方等大集經)』, 『대품반야경』이 각각 20편(遍)씩이고, 『지도론』, 『중론』, 『백론』, 『십이문론』이 각각 35편씩이었다. 이 밖에도 『법화경(法華經)』, 『사익경(思益經)』 등 수부(數部)가 있으나, 이 전기의 찬자(撰者)는 기록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³⁷⁾ 여기에서 『대품반야경』, 『지도론』, 『중론』, 『백론』, 『십이문론』은 삼론학의 소의경론이다. 『화엄경』의 중시는 승랑상승의 삼론학에서는 초조 승랑 이래의 전통적인 학풍이다. 이 밖의 다른 문헌은 모두 대승불교의 교의를 담고 있는 중요한 경장(經藏)이다. 혜용의 이러한 강론은, 제2조인 스승 승전의 학문을 대표적으로 계승한 법랑을 능가하고 있다.

법랑은 영정(永定) 2년(558)에 칙(勅)을 받고 흥황사(興皇寺)에서 25년간 강론을 계속하였다. 『화엄경』, 『대품반야경』, 사론(四論)이 각각 20여편씩이다.³⁸⁾ 그러나 혜용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법랑이 강론한 것 말고도 『열반경』, 『방등대집경』을 강론했는가 하면, 이 밖에도 『법화경』과 『사익경』 등 수부의 강론을 행하였다. 그리고 강론의 편수(遍數)도 법랑은 각각 20여편씩이지만, 혜용은 적어서 각각 20편씩이고 대부분 각각 35편씩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다시 말하거니와, 강론에 있어서 혜용은 법랑을 능가한다. 혜용의 이러한 강론은 주로 최종의 말년에 해당하는 18년 동안에 대선중사에서 지은 강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혜용은 전공사우 가운데 가장 정력적이고도 광범한 강론의 교육활동에 매진하였다 하겠다.

혜용의 전기 찬자(撰者)는 그의 일생을 총평하여, “또 일찍이 친애(親愛)를 버리었고, 약하지만 곧고 고절(苦節)하였으며, 문장과 성변(聲辯)이 당시에 높았다.

36) 『續高僧傳』卷第7, 釋慧勇, 『大正藏』第50卷, 478쪽 중단. “住大禪樂寺 十有八載 及造講堂也 門人聽侶 經營不日 接雲飛軒 製置弘敞 題曰 般若之堂也 以至德元年 五月二十八日 遘疾 少時 平旦 神逝 春秋六十有九 然其大漸之時 神容不變 經宿頂暖 衆皆異之 至六月六日 窆于攝山西嶺”

37) 위의 글, 478쪽 중단-하단. “自始至終 講花嚴·涅槃·方等大集·大品 各二十遍 智論·中論·百論·十二門論 各三十五遍 餘有法花·思益等 數部不記”

38) 『續高僧傳』卷第7, 釋法朗, 『大正藏』第50卷, 477쪽 중단-하단. “永定二年 十一月 奉勅入京 住興皇寺 鎮講相續 所以花嚴·大品·四論文言 往哲所未談 後進所罕略 朗皆指摘 前經論 各二十餘遍 二十五載 流潤不絕”

그리하여, 계수계족(啓手啓足)³⁹⁾에 이르러 검게 물들이지 않았다. 진실로 상교(像敎)의 동량(棟梁)이자 정밀한 교의(敎義)의 수폴이다”⁴⁰⁾라고 극찬하였다.

IV. 학풍과 수행에 있어서 승전과 혜용의 교육적 관계 - 결론을 대신하여 -

이제 학풍과 수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승전과 혜용의 교육적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스승인 승전과 그의 제자 혜용은 서로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그리하여 서로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이는 본질적으로 사제간의 교육적 윤리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접근을 위해서는, 승전과 혜용이 어떤 성향을 지닌 인물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각 어떠한 환경적 조건 속에서 삶을 영위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고려이다.

혜용은 조부의 관직으로 보아 비교적 높은 신분의 가문 출신이다. 그러나 부친의 요절로 혜용의 형제는 편모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그 기간도 아주 짧았던 것 같다. 그의 형제가 어려서 출가한 것은 이러한 가정사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독한 편모 슬하의 어린 시절에는, 응석을 받아주거나 어려운 일에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고 노력하는 습관이 심신에 배어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된 것 같다. 출가후 불교의 수학과 수행의 과정에서 매사 분발과 인내를 통해 철저를 기하는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적극적인 노력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된 제2의 천성이라 하겠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자신을 폭넓은 학생이자 지계(持戒)의 율사(律師)이면서 선송(禪誦)을 닦은 수행자가 되게 하였다. 또한 그의 위와 같은 성향은 강론에 있어서 제2조인 승전의 넓고 깊으며 높은 학문을 계승한 제3조 법랑을 능가하는 능력과 업적을

39) 啓手啓足은 曾子가 病이 들자, 제자들을 불러 “이불을 걷고 나의 발에 상처가 있나 보고, 또 나의 손에 상처가 있나 보라. 『詩經』에 이르기를 ‘떨리는 몸과警戒하는 마음 深淵에 임하듯이, 살얼음을 밟듯’이라고 하였으니 내 이제야 마음을 놓겠다. 너희들은 이 말을 잊지 말라”고 한 『論語』의 글에서 유래한다. 결국 啓手啓足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에 상처를 입지 않고 곱게 죽는 것을 뜻한다. 요약하면, 몸에 상처없는 죽음의 美稱이다. 『論語』, 『泰伯』, “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40) 『續高僧傳』卷第7, 釋慧勇, 『大正藏』第50卷, 478쪽 하단. “又早捨親愛 弱而眞苦 文章辯 時所高之 爰至啓手啓足 不淄不涅 寔像敎之棟梁 精義之林藪”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성향도 포착된다. 조부가 벼슬을 계기로 은둔을 택하였다. 당시의 정치적이고도 문화적인 풍조는 남조와 북조 사이에 깔려 있는 긴장과 여기에서 야기되는 전란들, 남조의 거듭되는 황조(皇朝)의 교체, 유송(劉宋) 문제(文帝)의 30년에 이르는 “원가(元嘉: 424-453)의 치세(治世)”와 양무제(梁武帝)의 재위 기간 48년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황실의 갈등과 폭정(暴政)으로 점철된 시기이었다. 개략적이거나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남조에서는 제위를 둘러싸고 거듭되는 갈등, 게다가 끊임없이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폭군과 극악한 학정(虐政)을 겪어가면서 지성인들 가운데 적지 않게 은둔의 삶을 택하는 풍조가 있었다. 이러한 영향일까. 혜용의 조부도 이러한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조부와 당시 지성계의 풍조가 상승작용을 하여 혜용 또한 은둔의 성향을 보여준다. 이미 언급했듯이, 혜용은 30세에 강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호불황조(護佛皇朝)라 할 양(梁)이 무너지는 양진(梁陳)의 교체기를 맞아 세상에서 숨으려 하나 갈 곳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하는 그의 모습은 과단성이 부족한 그의 소극적 일면이다. 그러나 혜용의 이와 같이 소극적인 일면은 불교의 수학과 수행의 과정을 통해 신중하면서도 인내심이 강한 덕성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혜용에게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이 온 것은 승전의 만남을 그 계기로 한다. 보은사(報恩寺) 앞을 가다가 승전을 만났다. 승전은 이 때, 죽여의(竹如意)를 주면서 “심구(尋究=探究)하면 반드시 뜻한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무하고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승랑상승의 신삼론학파는 성실학파와 길항 내지 갈등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하여, 승랑을 상승한 신삼론학파가 비판이나 비난의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주로 성실학파이었다. 혜용은 승전과 만나기 전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성실학을 자신의 종(宗)으로 삼고 있던 성실학승이었다.

혜용은 승전으로부터 삼론학의 문헌을 받아 모든 것을 잊고 삼론학 탐구에 몰두한다. 승랑과의 만남을 가서(嘉瑞)라고 하고, 이 가서를 흠양하면서도 그 날 카로움과 용맹함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한 성실학승인 혜용이 성실학에 가차없이 비판의 칼날을 드리대며 논단(論斷)하는 용맹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열이 오르고 신음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비통의 극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성실학승 혜용이 삼론학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몸과 마음의 속진(俗塵)을 다 털어 버리고 탈속한 모습으로 전환한다. 그리하여 공(空)을 닦고 혜(慧)를 익혀 임원(林遠)의 풍을 쫓았다.

그리하여 승전의 지관사(止觀寺)에 머물면서 조석으로 점차 평정(平靜)을 이루어 가면서 여유와 화락(和樂)을 성취하였다. 여기에서 임원(林遠)의 풍이란 동진(東晉) 지도림(支道林)과 여산 해원(慧遠)의 풍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삼론학의 선(禪)을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삼매(中觀三昧)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지도림과 해원의 선사상(禪思想)도 “반야공관의 중관삼매”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제 승전의 교육관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혜용의 전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A]: 때에 설산의 승전화상은 일승(一乘)을 직절(直截)한 고빠로 삼아 산중이나 세상에 횡행하였으며, 상대방의 기류(機類)를 따라 인도하여 깨우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⁴¹⁾

위의 인용문 [2-A]의 내용은, 혜용을 포함하여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승전의 탁월한 교육적 능력에 얼마나 크게 감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증언이다. 상대방의 기류에 따라 인도하여 깨우친다는 원칙은 석존시대의 초기불교 이래,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 그러나 불교의 문헌에서는 이 기류를 주로 상대방의 능력이나 수준으로만 보아왔다.

그러나 이 기류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은 물론이고 흥미 내지 그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이고도 심리적인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적 상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교육자는 항상 이 교육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승전이 “상대방의 기류(機類)를 따라 인도하여 깨우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승전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는 증언이기도 하다.

한편 승전화상이 “일승(一乘)을 직절(直截)한 고빠로 삼아 산중이나 세상에 횡행하였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일승사상은 대승불교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일승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조직한 것은 『법화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천태종과 『화엄경』을 소의(所依)로 하고 있는 화엄종에서이다.

그 가운데 우선 『법화경』 내지 천태학(天台學)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상대방의 기류에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이라는 삼승(三乘)의 구별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며, 결국

41) 위의 글, 478쪽 중단. “于時攝山諡尙直轍一乘橫山世隨機開悟有願遵焉.”

에는 누구나 다 미계(迷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불승(一佛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회삼귀일(會三歸一)을 뜻한다. 요약한다면, 기류의 구별은 어디까지나 교화를 위한 방편이며 일불승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를 교육학적 언어로 번역하면, 교육에 있어서 방법에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교육의 성취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승전은 바로 이와 같은 신념을 지니고 교육활동에 임하였다 하겠다.

한편 승랑 연원의 신삼론학 내지 삼론종에서는 초조 승랑 이래 화엄을 중시해온 전통이 있다. 따라서 화엄학에서의 일승사상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과문(寡聞)인지는 몰라도 승랑상승의 삼론학이 화엄학과 교섭한 역사적 흔적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단지 후대 길장(吉藏)의 저술인 『화엄경유의(華嚴經遊意)』 1권이 승랑상승의 삼론학자 관점에서 화엄을 검토한 유일한 것이다.⁴²⁾

이에 반하여, 천태학 내지 천태종의 형성 과정에서 천태와 승랑 연원의 삼론학은 많은 교섭관계가 있었다. 이미 대만의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혜사(慧思)가 있을 때에는 섭산(攝山)의 승려들이 이미 천태와 관계가 있었다. ... 지의(智顗)가 있을 때에는 섭산(攝山)의 일맥(一脈)이 천태와 더욱 많은 관계를 지녔었다. 대체로 천태의 관행(觀行)은 대품(大品)을 본존(本尊)으로 하였으며, 섭산의 일계(一系) 또한 정혜(定慧)를 주로 하여 겸해서 운용하였다. 당연히 그 교리와 맞은 서로 계합(契合)하였다. 관계와 교섭이 많아져 산문(山門)의 종의(宗義)는 양조(梁朝)와 진조(陳朝)의 시대에 강남에서 크게 성행하여 한 때의 기풍(氣風)을 이루었다. 그 뒤 지자대사(智者大師)는 먼저 양주(揚州)에 있었고 뒤에 형주(荊州)에 이르렀다. 형주와 양주에는 당시 삼론종 사람들의 세력이 가장 성했던 지역이다(형주도 또한 선법이 유행하던 지역이다). 즉 천태 일종(一宗)은 남방에서 성하였다. 실로 삼론의 제사(諸師)들이 있어 선구적인 모습이 되었다. 우리들이 만약 남제(南齊)에서 수(隋)에 이르기까지 강동(江東) 불학(佛學)의 변천을 논한다면, 섭산이 우두머리가 되어 성실학의 자리를 탈취한 형국이다. 그 다음 천태가 삼론의 발뒤꿈치를 이어가게 되었다. 전자는 의학(義學)의 쟁집(爭執)이며, 후자는 정학(定學)에 의하여 서로 계합한 것이다.⁴³⁾

42) 平井俊榮, 앞의 글, 355-356쪽.

43) 湯用彤, 『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 下冊(臺北:臺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中華民國80年9月臺2版), 796-797쪽. “是在慧思之時 攝山僧人 已與天台有關係 ... 在智顗之時 攝山一脈 與天台尤有關係 夫天台觀行 本尊大品 攝山一系 亦主定慧兼運 宜其理味相契 多有關涉 而且山門宗義 梁陳大盛於江南 成一時風氣 其後智者大師 先在揚州 後至荊州 荊揚乃當時 三論宗人 勢力最盛之地(荊州亦禪法流行之域) 則天台一宗 盛於南方 實有三論諸師 爲之先容 吾人若論南齊至隋 江東佛學之變遷 則首爲攝山 尊成實之席

위의 인용문은, 형성기에 있던 천태종과 승랑계열의 삼론종의 교섭관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승랑계열의 삼론종은 이미 성행(盛行)의 기반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천태와 삼론의 공통점은 실천적 수행(修行)에서 발견된다. 천태는 관행(觀行)에서 대품 다시 말해 삼론종의 소의경(所依經)인 『대품반야경』을 본존으로 하였다. 한편 삼론종의 선적인 경향은 정혜를 주로 하면서도 겸해서 운용하고 있었다. 결국 천태종과 삼론종은 반야공관의 중관삼매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의나 수행의 체득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 계합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이는 승랑(僧朗) 계열의 습선자(習禪者)와 천태 계열의 습선자 사이에 서로 긴밀한 교섭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섭관계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예시(例示)하기로 하자. 제2조 승전의 선적인 경향을 대표적으로 계승한 혜포(慧布)는 남악(南岳) 혜사선사(慧思禪師)와 대의(大義)를 논하여 혜사를 감탄하게 하였다.⁴⁴⁾ 그리고 이 혜사와 정업(定業)을 닦은 혜명(慧命)의 스승 막선사(邈禪師)와 3일에 걸쳐 논의를 교류하였다. 여기에서 막선사는 혜포의 지혜와 깨달음이 깊은 것에 감탄했다.⁴⁵⁾

당시의 강남 불교계의 상황은 승랑의 후예인 삼론종이 최성기(最盛期)를 맞고 있었다. 천태종은 이 삼론종을 모델로 하여 따라가기 바쁜 형편이었다. 그리고 성실종은 삼론종에 의해 그 기반이 거의 상실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삼론종과 초기의 천태종은 상호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길장은 승랑 상승의 학설들을 집대성하여 전개한 제4조이다. 화엄의 중시는 승랑 이래의 학풍 내지 가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길장의 저술목록에는 화엄에 관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에 반하여 길장의 저술목록에는 법화 내지 천태에 관한 것으로 『법화경현론(法華經玄論)』을 위시하여 5부 32권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⁴⁶⁾ 이는 삼론종과 천태종의 위와 같은 상호교섭의 역사적 인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편 승랑 이래의 전통이었던 화엄의 중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화엄에서의 일승사상을 천태의 그것과 비교하여 서로 동이점(同

次爲天台 繼三論之宗 前者爲義學之爭執 後者因定學 而契合也”

44) 『續高僧傳』卷第7, 釋慧布, 『大正藏』第50卷, 480쪽 하단-481쪽 상단. “造思禪師 與論大義 連徹日夜 不覺食息 理致彌密 言勢不止 思以鐵如意打案曰 萬里空矣 無此智者 坐中千餘人 同聲嘆悅”

45) 위의 글, 481쪽 상단. “又與邈禪師論議 卽命公之師也 聯綿往還 三日不絕 邈止之 嘆其慧悟遐舉 而卑節行 不顯其美”

46) 平井俊榮, 앞의 글, 355-356쪽.

異點)을 확인하고, 이 동이점이 각각 교육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까 하는 점도 밝혀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승전은 삼론학의 학장(學匠)인 동시에 선사(禪師)의 풍모를 또한 지니고 있는 선사(禪師)이었다. 그런가 하면, 반복하거니와, 혜용은 선송(禪誦)을 예리하게 닦으면서 채식으로 몸을 다스린 지계(持戒)의 수행자인 동시에 율학(律學)에도 식견을 갖춘 인물이다. 또한 스승 승전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승랑 상승의 삼론학과는 길항(拮抗) 내지 갈등의 관계에 있던 성실학(成實學)을 자신의 종(宗)으로 삼고, 정(情)을 깎고 갈고 또 갈아 침식과 피로를 잊었다. 그런가 하면, 고심하여 사색하고 침잠하여 구덩이와 언덕에 떨어지고 추위와 더위를 두루 지내면서 널리 익히어 대성한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실천적 수행자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空)을 닦고 혜(慧)를 익혀 임원(林遠)의 풍(風)을 좇아 승전의 지관사(止觀寺)에 머물러 아침저녁으로 화락(和樂)하게 되었다”고 한다. 혜용이 스승 승전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을 굳세고 먹고 긴장한 가운데 분발하여 힘써 노력하는 각고면려의 노력을 다한 학승이었다. 그러나 승전과의 만남을 계기로 공(空)을 닦고 혜(慧)를 익혀 임원(林遠)의 풍을 따르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의 정신세계는 평정심(平靜心)을 이루었다. 이제 여유와 안정 속에서 나타나는 화락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혜용은 승전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미 승전의 선적인 경향에 접근해 가고 있었다.

혜용의 전기에서는 “승전법사는 연기(年期)를 잊고 의리(義理)는 스승과 벗을 겸하였다”⁴⁷⁾고 한다. 혜용은 일찍이 선송(禪誦)을 닦기도 했으나, 공(空)을 닦고 혜(慧)를 익혀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삼매(中觀三昧)에 기초한 선을 닦은 것은 승전과의 만남을 그 계기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승전이 “연기(年期)를 잊고 의리(義理)는 스승과 벗을 겸하였다”는 것은 제자 혜용이 스승 승전의 선적인 경향과 맞닿아 있는 표현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이 표현은 스승 승전과 그의 제자 혜용이 연기(年期)를 초월하여 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아니, 위의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내함(內含)하는 것이기도 하다. 혜용의 전기에 등장하는 다음의 내용은 승전과 혜용의 교육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B]: 또한 궁성(宮聲)과 우성(羽聲)이 서로 조화하고 얼음과 쪽빛이 더하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로부터 말과 장구(章句)를 베어내고, 분명하지 않은

47) 같은 글. “證師忘以年期 義禪師友”

것을 캐내고 뽑았기에 무릇 그 경전의 주석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대법(大法)을 전할 수 있었음은 이에 의존한 것이었다.⁴⁸⁾

위의 인용문 [2-B]에 의하면, 스승 승전에게서 제자 해용에 대한 권위적인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반복하거니와, 승전이 연기(年期)를 초월하여 서로의 의리는 상호 스승이자 벗의 관계였다. 그리하여 궁성(宮聲)과 우성(羽聲)이 조화하며 얼음과 쪽빛이 더하기를 기다리고자 마음먹었다. 스승 승전이나 제자 해용이나 모두 서두르거나 쫓기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해용은 출가하고 나서 긴장한 가운데 분발하여 각고면려하던 모습에서 여유와 자유, 그리고 평정(平靜)의 나날을 유지하게 된다. 서로의 관계가 궁성과 우성이 조화하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에서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겠다.

얼음과 쪽빛이 더하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이 말은 『순자(荀子)』에서 유래한다. “군자가 말하기를, 학문은 가히 말 수 없는 것이다. 푸른빛은 이를 쪽빛에서 취하지만 쪽빛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이 만들지만 어름보다 차다”⁴⁹⁾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문은 한시라도 쉴 수 없다는 것이며, 이른바 청람(靑藍)과 빙수(氷水)의 비유를 통해 학문에 있어서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승은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제자 또한 분발과 열성을 다하여 학습할 것을 권면(勸勉)하고 있는 내용이다.

위의 인용문 [2-B]에서는, 이러한 권면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스승은 힘써 연구하여 말과 장구(章句)를 베어내고, 불분명한 것을 가려서 캐고 뽑아 통효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示唆)하는 내용이 보인다. 그렇게 해야 제자에게 대법(大法)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승전 문하의 네 철인 가운데 지변에 관한 것이 그의 제자 해인(慧因)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2-C]: 또 장간사(長干寺)의 변법사(辯法師)에게 이르러 삼론을 품학(稟學)하여 실상(實相)의 미묘(微妙)한 말을 궁구(窮究)하였으며, 만자(滿字)의 그윽한 뜻을 흥포하여 사수일기(瀉水一器)를 이루니, 푸른빛은 더욱 쪽빛보다 나왔다.⁵⁰⁾

48) 같은 글. “抑亦宮羽相諧 氷藍待益之志也 自此言刈章句 採微希微 凡厥釋經 莫不包舉 大法獲傳 於焉是賴”

49) 『荀子』卷第1, 「勸學篇」. “君子曰 學不可以已 青取之於藍 而青於藍 氷水爲之 而寒於水”

50) 『續高僧傳』卷第13, 釋慧因, 『大正藏』第50卷, 522쪽 상단. “又造長干辯法師 稟學三論 窮實相之微言

위의 인용문 [2-C]는 헤인이 장간사의 지변에게 가서 삼론을 수학하고 연구한 것을 기술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사수일기(瀉水一器)의 비유가 등장하는가 하면, 청람(靑藍)의 비유도 나타난다. 이를 앞서의 인용문 [2-B]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승전의 교육목표는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궁구(窮究)하여 진리를 깨닫도록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승전 자신의 교육방침이었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오류가 아니라면, 지변이 지니고 있는 교육의 목표와 방침은 스승 승전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위의 [2-C]에 등장하는 사수일기(瀉水一器)는 직역하면, 물을 한 그릇에 쏟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병의 물을 한 그릇에 쏟는 것으로써 사자상승(師資相承)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사자상승(師資相承)하면서 제자들이 스승 승전보다 더 훌륭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참된 교육적 사랑과 지혜를 갖춘 스승과,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와 가치에 갈증을 느끼며 구도적인 정열을 지닌 제자와의 만남은 스승이나 제자나 서로 자기자신을 견지하면서, 각각 실존적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오늘날 제도화된 교육체제의 틀에서는 공리적인 감각만이 교육적 상황을 지배한다. 고매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적 상황에서는, 스승은 제자를 통하여 자신의 실존이 드러날 수 있다. 또 제자도 스승을 통하여 자신의 실존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만남이야말로 서로 인간 개개인에게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스승의 환희와 보람이 있으며, 또한 제자의 비약적인 감동과 전연 생각하지 못한 정신적 눈뜸으로서의 개안(開眼)이 있는 것이다.

승전의 제자 혜용은 각고면려하면서 피나는 수학과 수행의 연마를 거쳤다. 그러나 혜용은 승전을 만나 전연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탄생한다. 한 인간을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것, 그 또한 고매한 가치의 추구하고 교육적 사랑과 지혜를 갖추지 않고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춘 자는 정신적 차원에서 다음 세대의 인간 개개인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탄생을 거듭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인간을 배출해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정신사적 측면에서의 향상을 부단히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고구려 출신 승랑을 상승한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 제2기에서의 경우, 승전 문하의 네 철인인 소위 전공사우 가운데 혜용은 어떠한 교육적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승전의 교육적 지향과 방침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나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승전과 혜용의 교육적 만남은, 제자 혜용에게는 스승 승전을

통하여 실존적으로 다시 탄생하게 하였으며, 스승 승전에게는 해용을 정신적 차원에서의 다음세대를 실존적으로 다시 탄생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배출해 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정신사적으로 사수일기(瀉水一器)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이다. 이러한 사자상승을,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람(靑藍)과 빙수(氷水)의 비유로 함축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는 제자가 장차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당위(當爲)이기도 하다.

이 당위가 스승과 제자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이는 스승에게는 제자를 향하여 스승을 능가하도록 권면하여 그 결실이 성취함을 통하여 교육에 종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교육적 차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그 특별한 의미이다. 그런가 하면, 제자에게는 존경하는 스승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힘써 스승을 능가하게 됨을 통하여 자신의 구도적인 실존 내지 가치가 실현된다. 제자의 스승에 대한 진정한 보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정신사적 세대 사이의 대물림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끊임없이 갱신(更新)해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실존적 자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 자체의 작용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용은 승전과 해용의 관계에서, 승전은 교육적 상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실존을 드러냄에 의하여 해용을 실존적으로 거둬나게 하였고, 해용 역시 교육적 상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냄에 의하여 승전을 실존적으로 거둬나게 하였다.

여기에서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Begegnung geht vor Bildung)”⁵¹⁾는 명제가 오늘날 제도권의 틀에 매몰되어 있는 학교교육에 던지는 메시지(message)는 매우 심각하다. 진정한 교육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지식과 기술이 교육에 결코 전적으로 배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불가(佛家)에서는 상식화되어 있는 가르침이거니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젓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르침은 진정한 인간교육에 있어서 지식이나 기술에 앞서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식이나 기술 이전에 인간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됨됨이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지식과 기술은 전혀 다르게 활용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지식과 기술의 의미나 가치도 전혀 달라

51) Bollnow, Otto Friedrich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59), IV.

진다. 이러한 점이 바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라도 정신적으로 깨어 있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며, 어떠한 사태에서도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격적 됴됨이는 언제나 인간의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하겠다.

이미 언급했듯이, 제2조 승전과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4철(哲) 즉 전공사우(詮公四友)의 시대는 중국 삼론학과 내지 삼론종의 역사에서는 제2기에 해당한다. 이번의 연구는 제2조 승전과 그의 제자 혜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육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승랑 상승(相承)의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 제2기의 학풍 또는 가풍의 일면을 해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고구려 출신 승랑에 연원한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 제2기의 경우, 사수일기(瀉水一器)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하면서 청람(靑藍)과 빙수(氷水)의 비유에 상응하는 교육의 방침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승전과 혜용이 교육적 상황 속에서 상호 교섭하는 가운데 학문과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삼매(中觀三昧) 성격을 지닌 선(禪)을 통하여 혜용과 같이 당대 최고의 고승을 배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아래에서 『大正藏』은 『大正新修大藏經』을 가리킨다.

「高僧傳」, 『大正藏』 第50卷.
 「廣弘明集」, 『大正藏』 第52卷.
 「法華玄義釋籤」, 『大正藏』 第33卷.
 「辯正論」, 『大正藏』 第52卷.
 「續高僧傳」, 『大正藏』 第50卷.
 「出三藏記集」, 『大正藏』 第55卷.

『金陵梵刹志』.	『宋書』.
『南史』.	『荀子』.
『南齊書』.	『梁書』.
『論語』.	『魏書』.
『北史』.	『晉書』.

- 朴先榮(1999A), 고구려 僧朗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師承관계, 『田雲德總務院長華甲紀念 佛教學論叢』.
- 박선영(1999B),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량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풍, 《宗教教育學研究》第9卷, 서울: 韓國宗教教育學會.
- 박선영(2000), 고구려 출신의 승량을 상승한 중국삼론종 제2기의 가풍[1] - 제2조 승전과 제3조 법랑을 중심으로 -, 《宗教教育學研究》第10卷,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湯用彤(中華民國30年9月臺2版), 『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下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 鎌田茂雄(1984), 『中國佛教史3 - 南北朝の佛教』,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平井俊榮(1976), 中國般若思想史研究 - 吉藏と三論學派 -, 東京: 春秋社.
- Bollnow, Otto Friedrich(1959),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